

여성 소외 계층에 대한 담론 형성 양상 연구

- 『여원』에 나타난 사회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서연주*

차례

1. 19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근대성 구축의 문제
2. 도시 중산층 여성의 잡지 『여원』
3. 『여원』에 나타난 근대화 프로젝트의 흔적
 - 3.1. 이상적인 가정의 불순물 ‘식모’
 - 3.2. 도시의 범죄 예비 집단 ‘여공’, ‘여차장’, 그리고 ‘윤락여성’
4. 『여원』의 정체성-근대화 프로젝트의 매개체

국문초록

본고는 1950·6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잡지인 『여원(女苑)』에 나타난 여성 소외 계층에 대한 담론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가 재건 프로젝트가 철저히 이중화된 담론으로 일상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 보았다. 이 연구는 1960년대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었으며 또한 일상 속에 그 사회적 담론이 어떻게 파고 들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여원』은 도시 중산층이라는 한정된 계급을 주 독자층으로 산정하여 편집된 잡지이다. 이 가운데 잡지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도시 중산층의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서로 길항관계를 이루며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 국민대 국문학과 강사

서 한편으로 『여원』은 산업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가운데 소비의 주체가 된 여성에 대해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원』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주체적인 자각에 대한 의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도리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심화시키는 기제를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작용할 뿐이다. 식모, 여공, 여차장, 윤락여성 등 여성 소외 계층을 다루는 논의에 숨겨진 의도는 여성독자에게 ‘낭만적 사랑’에 만족하는 ‘현모양처’, ‘스위트 홈’의 건실한 주체자로서의 위치가 가장 행복한 것이며 이상적이라는 것을 내면화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 여성 소외계층 대상을 다루는 취재 기사나 르포 속에 나타난 서술자와 취재 대상간의 관계는 가부장적인 사회질서에 따라 구성되어진 권력관계의 단면을 표상한다. 그리고 『여원』은 이런 설정을 반복하여 등장시킴으로써 중산층 여성독자에게 자신의 계급적 위치의 안정감을 재확인시켜 국가 정책에 충실한 현모양처가 될 것을 강조한다. 결국 여성지 『여원』은 국가 시책에 호응하는 현모양처를 훈육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어 : 여원, 19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 박정희 정부, 도시 중산층 여성독자, 여성 소외 계층(식모, 여공, 여차장, 윤락여성), 이분화, 현모양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훈육

1. 19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근대성 구축의 문제

1960년대는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이다. 한국 사회는 6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를 중심축으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변화와 발전을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경험하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재성의 기원을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거치며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은 많은 비판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권 시대를 포함하여 1961년에서 1979년까지 지속된 박정희 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하고 일상적인 언설인 ‘근대’ 혹은 ‘근대화’라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애매모호함과 모순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의 단절, 거부 그리고 변화의 추구, 미래 지향을 표명하는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또한 ‘새로운’, ‘서구적’, ‘발전’, ‘과학적’, ‘기술적’, ‘국제적’이라는 이미지와 욕망이 결부되어 ‘새로운 현재’를 구성해내기 위한 담론이 구축되는 과정이기도 하다.¹⁾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사회의 물질적, 사회적 현실을 새롭게 조직하고 변화시킨 근대화 프로젝트는 어떠한 문화적 조건에서 어떠한 의미를 조직해 내며 진행되었을까. 또한 한국 사회에서 국가 중심의 전체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발전 기획을 가능하게 했던 담론은 어떤 양태로 형성되었던 것일까?²⁾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박정희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담론은 무수하지만 그것이 실제 일상의 생활 속에 어떻게 침투하였으며 대중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연

1)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우리 안의 파시즘』, 임지현 외, 삼인, 2000, 108~110쪽 참조.

2) 이런 의미에서 김은실이 접근하고 있는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이 박정희가 주도한 개발주의와 민주화 억압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물질적, 사회적 현실을 새롭게 조직하고 변화시킨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어떠한 문화적 조건에서 어떠한 의미를 조직해 내며 진행되었는가는 거의 연구하지 않았다. 국가 중심의 전체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발전 기획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 담론적 전환은 어떤 것이었을까? 전쟁의 기억이나 냉전 체제의 공포 혹은 가부장적 문화의 매개를 통해 근대화 프로젝트의 모순이 완충되면서 개발 독재 체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 작용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사실 김은실의 이러한 지적이 나에게 이 글을 써보아겠다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박정희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담론 중에 그것이 실제 일상의 생활 속에 어떻게 침투하였으며 또 대중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 작업이 미비하다는 지적은 사실이다. 또한 이런 담론화 작업에 대해 실제 당대의 작품들은 어떤 입장에 서서 의미망을 구성하고 있는가까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에 대한 갈급함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구 작업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기획 하에 1950·6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잡지인 『여원(女苑)』에 나타난 여성 소외 계층에 대한 담론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근대화 프로젝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사회적 담론을 구성하여 일상 속에 파고 들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2. 도시 중산층 여성의 잡지 『여원』

4·19에 의해 ‘자유’를 구가하던 국내 언론은 5·16군부와 공화당 정권에 의해 그 자유를 유보하는 대신 사상 유례없는 상업화와 기업화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언론시장 여건을 개선시키는 경제 성장에 의해 더욱 자연스럽게 고무되었다. 또한 5·16 이후의 언론은 4·19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던 자유주의적 언론관과 군사정권에 의해 새롭게 부가된 발전주의적 언론관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점차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해야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편입되거나 동원되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는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반면 그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언론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처럼 1960년대의 한국 언론은 1950년대에 구가하던 정치적 다양성의 논리를 포기하는 대신 국가의 경제 발전 논리에 점차 순치되면서 스스로 경제논리에 따라 상업화, 기업화하는 경향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1960년대는 ‘언론의 기업화 시대’라고 할 만큼 국내 언론의 상업화, 기업화 현상이 두드러진 연대였다. 정부에 의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 외에도 본

지 외의 자매지 발행과 신문, 방송 등의 경영 허용, 그리고 언론사업과 무관한 타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여파로 언론의 기업화가 더욱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³⁾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 60년대에는 많은 잡지들이 창간된다.

『여원(女苑)』은 1950·60년대 도시 중산층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성지이다. 1955년 10월호로 시작된 『여원』은 “여성의 문화 의식 향상을 위하여”라는 목표 하에 창간되어 여대생과 도시 중산층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하였다. 『여원』지는 1970년 4월호로 폐간되기까지 60년대에 창간된 『여상』(1962년 11월 창간), 『주부생활』(1965년 4월 창간), 『여성동아』(1967년 11월 복간), 『여성중앙』(1969년 11월 창간)과 더불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여성지 시장을 넓혀 나갔던 잡지이다.⁴⁾

3) 강상현,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1963~197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백산서당, 1999, 168~170쪽.

“오·일육 혁명 후로 정부는 매스 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부득이한 조치에서 일련의 타율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언론의 순수한 자유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 이러한 정부의 간섭은 비록 그것이 선의에서 출발한 육성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환영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와 언론계의 현실이 자율적으로 매스콤의 성격과 특질을 개선 향상시킬 수 없었다는 데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책임의 일반은 매스매디아측에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김규환 (국제신문인 연합회사무국장), 『매스·콤 時代에 산다는 것』, 『여원』 1962년 9월호, 122~123쪽. 정부의 언론 규제에 대해 당시 언론인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다. 정부 시책에 불만을 가지고는 있으나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 언론의 한계를 통탄하는 논조이다. (이하 『여원』 인용시에는 제호없이 발간 연도와 월호만 표기).

4) 『여원』은 1955년 10월에 창간되어 1970년 4월 통권 175호로 중단되었다. 발행인은 김익달(金命燁), 주간은 김명엽이었다. 처음에는 학원사에서 펴냈으나, 1956년 6월 학원사 부사장이었던 김명엽이 독립하여 여원사를 창립한 이후 계속 발간하였다. 국판, 180면 내외로 출발하여 1967년부터 4·6배판 200면 내외로 늘렸다.

교양·오락·생활정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 크게 각광을 받았으며, 당시 신태양사에서 발행하던 『여상』과 함께 여성 독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부대사업으로 요리·꽃꽂이 강습회 등을 개최하였고, 1959년 7월호에는 부록을, 1960년 1월호에는 가계부를 곁들여서 펴냈다. 본격적인 상업지로서의 체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잡지였으나, 그후 창간된 『여성동아』, 『주부생활』, 『여성중앙』등과의 판매경쟁으

당시 잡지 시장이 그리 넓지 않았던 여건 하에서도⁵⁾ 『여원』의 인기와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독자편지에서 표출되는 『여원』의 이미지는 대체로 “무한한 여성들의 동경의 대상”이며 “마음의 준비를 위한 좋은 혼수”로 교양을 위한 교과서 역할을 했던 잡지였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올케가 시집을 때 보니 『여원』 한 권도 없더라”며 흥을 잡는 내용이 실리기도 한다. 또 『여원』은 국내 여성뿐 만 아니라 남성들과 해외에서까지도 화제의 잡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남성독자는 “저의 애인을 위하여 『여원』을 구입하여 주고 있으며 ‘여성적인 것’을 아는데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며 풍부한 화제, 토론의 꽃을 피우는데 여원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⁶⁾

특히 1960년 1월호부터 부록으로 증정되었던 가계부는 단연 화제거리였다.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주부되기라는 구호를 내걸고 배부된 이

로 경영난에 빠져 1970년 4월에 중단되었다. www. naver. com.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5)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신문은 약 백만의 발행부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비해, 잡지는 (물론 상업지를 말한다) 고작해야 이십 만부를 넘기가 어렵지 않을까 추산된다.” 이종환, 「교양과 휴식을 주는 잡지」, 1962년 9월호, 126~127쪽.

6) 당시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1963년의 여원지 몇 권을 살펴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은 맥락의 글이 눈에 띈다.

“학창을 등지고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나날을 나태와 열등감으로 허덕이던 제가 여원이라는 교양잡지 덕분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되었는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여수시고소동858 곽홍자, 1963년 3월호, 420~421쪽.

“무식장이란 이름을 듣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써가고 있는 제게 교양지 여원은 참으로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내 조그만 책장이 이제는 그래도 여원으로 하여금 면모를 갖기 시작한 것도 정말 즐겁고 또한 자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신년호엔 별책부록 ‘가계부’까지 마련해 주셔서 살림을 하는 저의 올케언니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김해군김해읍지내동이구사팔4 조숙정, 1963년 3월호, 421~422쪽.

가계부는 단순히 부록 차원의 것이 아니라 『여원』이 타 여성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적 지침이기도 하였다. 또 이것은 박정희 정부의 검약과 내핍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에도 걸맞는 것이었다.⁷⁾ 이렇게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어울렸던 가계부는 독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밖에도 그즈음의 정책을 반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기획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나의 부업’이라는 코너이다. 『여원』에는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란으로 수기, 여원상담실, 독자문예,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부업, 생활의 아이디어 등이 꾸준히 연재되었는데 이중 “생활이 윤택해지기 바라는 주부의 정성으로 시작해본 어떤 부업얘기든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독자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나의 부업’ 코너는 가사임무와 병행할 수 있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건사회에서 주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그 한 몫을 하고 있다.

『여원』은 도시 중산층이라는 한정된 계급을 주 독자층으로 산정하여 잡지를 편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잡지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도시 중산층 여성의 입장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다루어진다. 도시/농촌 혹은 서울/시골, 교육받은 자/교육받지 못한 자, 전업주부/직장여성, 서구적/전통적 등 이렇게 이분법적 대립항은 서로 길항관계를 이루며 잡지의 담론을 주도한다. 『여원』의 창간 취지는 “모든 여성의 지적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를 부어드리며, 새로운 시대사조를 소개 제공코자 하는 데에 그 미의(微意)가 있다”였다. 잡지에 실려있는 건강, 육아, 패션, 요리법, 영양상식, 의학상식, 법률상식, 꽃꽂이, 손편물, 영화, 문예, 문화동정란 등은 도시 중산층 여성

7) 당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한국의 부강책 중 하나로 가계부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기치가 강조되었으며 학교에서는 가계부쓰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특집 계량생활 1961년부터』, 1960년 12월호, 102~103쪽.

의 문화 형성을 선도하며 여가선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가생활이 일반인에게 권장되기 시작한 것이 전후 혼란기를 지나 빈곤의 문턱을 겨우 넘기 시작한 1970년대였다⁸⁾는 점을 감안해 볼 때 1950·60년대 여성잡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여가선용방법이란 분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읽게 되는 독자는 자신의 실제 세계를 유예하고 역사가 없는 영역에 참여하여 잡지에서 의도된 현실에 길들여져 가게 된다. 이렇게 『여원』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와 더불어 가속화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 도시 중산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소비의 주체로 부상한 여성에 대한 규제를 담당해야 했던 것이다.

3. 『여원』에 나타난 근대화 프로젝트의 흔적

3.1. 이상적인 가정의 불순물 ‘식모’

1955년 창간호부터 1960년에 접어들기까지의 『여원』은 전후에 갑자기 늘어난 인구와 가난에 허덕이는 실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후 미망인의 개가 문제나 급작스럽게 변모한 성모랄,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부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계와 댄스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규제,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각성, 그리고 전후에 급증한 베이비붐에 대한 실질적인 피임법 등을 자주 다루었다. 『여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우선 각 개인이 의식각성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성들은 전통적인 미덕과 서구적인 교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8) 전경옥, 변신원 외 2인, 『한국여성문화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93쪽 참조.

이러한 담론의 중심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조국 근대화라는 지상 과제를 향하여 매진하게 되는 1960년대부터는 ‘새로운 현모양처형’이 등장한다. 이 ‘새로운 현모양처형’이란 애국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반공, 절약과 검약을 실천하고 나아가 경제 활동의 일선에 나서는 여성이다.⁹⁾ 간단한 생활비쯤은 부업으로 충당

9)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국력을 국민 총생산고로 따지는 시대에 일본의 주 부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화는 가내 수공업을 통한 수출과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이 가정 부업을 통한 외화획득은 국내 기업인들에 의해 착안되었고 정부에서도 경제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논조로 일본의 전후 재건 모습을 소개하며 가정주부 들에게 부업을 권고한다. 그 이전에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신지 않았었기에 일본을 예로 들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눈에 띄는 점이다. 일본의 사례와 함께 이 글은 여성의 부업으로 “양재, 미용, 편물”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리고 독자 수기 형식으로 성공한 부업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집 여성의 부업 안내-잘할 수 있는 지름길』, 1961년 12월호.

또한 좌담회를 통해서도 농촌생활의 의식주 생활 문화의 개선, 우물과 행주, 아궁이와 변소의 개선 방향, 가족계획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논조와 사뭇다른 관점이 보인다. 『좌담회 농촌을 밝히는 여성의 힘』, 1961년 12월호.

1962년 8월호의 내용을 보면 정권의 정당성과 근대화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세우려는 의도들을 확연히 읽을 수 있다. 수기 형태로 ‘어려운 살림을 극복한 체험’을 다룬 기사들은 대부분 여성의 애국심을 강조한 실천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글들은 한결같이 여성은 허영과 사치를 배격하고 내면적인 개화를 하여 생활을 개선하라는 논조이다. 그 논조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다음의 글을 한번 살펴보자.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양단된 비극 속에 대립되고 있으며 한 때는 국민들이 확고한 사상을 갖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마터면 공산주의의 마수에 걸려들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위기를 극복시킨 5·16의 군사혁명으로 국민들은 미몽에서 깨어 공산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굳건히 할 기회가 마련되었고 지난날의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고 기울어진 국민생활을 바로잡기 위하여 경제 재건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 시국을 바로 보고 실생활을 통하여 애국심을 실증해야 될 것입니다.” 유덕천 (재건운동본부지도부장), 『여성의 애국심』, 1962년 8월호, 75쪽.

이외에도 1960년 10월호의 『특집: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가?』(1960년 11월호), 『좌담회: 가정생활의 합리화와 미화』(1960년 11월호) 등에서는 ‘계량 생활’, ‘가정 생활의 혁명’ 등의 주제로 가계부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식생활의 합리화, 부업 설비의 개선, 가족 화목을 위한 분가의 필요성, 일하기 편하고 간단한 양복으로 의생활을

하여 남편에게 기대지 않아야하며 남편을 성공시키는 내조를 겸비해야 하는 것이 새로운 현모양처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¹⁰⁾ 또한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더욱 전문화되어 주부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이 상적인 가정이란 주부가 식단을 편성하여 가족의 섭생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며 가족 구성원의 형편에 맞게 가옥을 개조하여¹¹⁾ 직접 걸레를 쥐

개선할 것 등과 같은 내용을 지도층 인사의 논단과 더불어 이를 실천하는 주부들의 좌담회, 수기 형태로 지속적으로 편성한다.

- 10) “전 시대의 아내는 남편의 단순한 노리개에 지나지 못했으나 현대의 양처는 자주적으로 내조의 공을 나타내는 아내이다. (...)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아내의 영역은 본시 명백한 것이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남편에게 짐이 되지 말고, 절대 필요한 생활비 외의 것을 정상적인 강요하지 말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며 (...)”라고 아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강영수,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의 재주』, 1962년 7월호.

여류작가 박기원이 결혼 전 어머니 김순기(동신국교 교장)로부터 받은 글을 보면 “시아머니를 잘 섬겨라. 먼저 참아라.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야 하며 아침 화장은 얇고 산뜻하게 하라.”라는 지침을 훈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에서 당시 기성세대는 여전히 고전적인 의미의 현모양처형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여성상은 고전적인 의미의 현모양처형과 근대화 프로젝트에 일조하는 주부상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김순기, 『출가훈(出嫁訓)』, 1962년 7월호.

- 11) 주생활계획을 다루고 있는 당시의 기사들에서 권장되는 가옥구조는 바로 ‘아파트’형이다. 1962년 9월호의 『특집 신부교실』에서는 새 가정을 설계하는 신혼 부부를 위해 “근대양식의 원 룸” 13평형을 소개하고 있다. 도면 설계도와 더불어 가구배치 도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글에서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주택을 아파트형으로 전면개조한 한 인텔리가정의 일화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요사이 유행되는 이 원룸이 좋은 점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의 간이화와 가구로 벽면을 대용함으로써 공간을 융통있게 쓸 수 있는 점과 간을 막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경제된다는 점등을 들 수 있겠는데 식구가 많지 않은 가정 특히 신혼부부의 생활로서는 이 씨스팀은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며 조리있는 생활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합니다.”

이런 가옥구조가 권장될 수 있는 이유에는 기계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탄생한 핵가족화 현상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가옥 구조 개량은 당시 정책적 입장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실제로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 준공식에는 박정희가 직접 참석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이

고 뒤을 때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상적인 가정을 형성하는데 장애물로 지적되는 것은 불편한 가옥 구조와 불필요한 구습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게 되는 ‘식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원』지에 실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물론 단간짜리 세방(貰房)사리, 판자집 살림에서도 환경과 가정 형편은 념두(念頭)에도 없다는 듯이 서로 다투어 너도나도 식모를 두고 있다”¹²⁾라는 표현이나 “밥만 굶지 않고 사는 서울의 가정이라면 모두 식모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경찰 추산으로 서울에만 5만 명의 식모가 있다”¹³⁾ 등의 기사로 미루어볼 때 당시에 식모 두기는 어느 정도 보편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에는 전후 일자리를 구해야했던 여성들에게 식모란 특별한 기술없이 낮은 학력으로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숙식이 해결되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일자리였다는 점이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식모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봉건적 노동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기도 했다.¹⁴⁾

당시 다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식모는 옛날 노예나 거의 다름없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중노동을 하고도 임금은 최저수준이었으며¹⁵⁾ 특히 일부는 한 푼의 보수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한다.

있었다. 그 결과 이 마포아파트는 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1964년에는 방 두칸과 화장실, 나무마루, 연탄보일러를 갖춘 국민주택형 서민아파트인 삼일아파트가 건축된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업체들이 아파트 건축에 대거 참여하게 되어 드디어 아파트시대가 열리게 된다.

12) 장창욱, 『식모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자』, 1957년 11월호, 59쪽.

13) 김인건, 『식모, 이 변함없는 인권의 푸대접』, 1966년 5월호, 330쪽.

14) 김정화, 『1960년대 여성노동-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1호, 2002, 84쪽 참조.

15) “1964년 당시 쇠고기 한근(600g) 129원, 연탄 10개 76원, 쌀 3천 659원이었는데 카톨릭 청년회에서 1964년 조사한 식모들의 임금이 대체로 500원에서 600원 정도

또 다른 직장과 다르게 일정한 휴일이 없어 명절 때 며칠 휴가를 얻어 고향에 다녀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보다 더욱 식모들을 괴롭힌 것은 집주인의 폭행, 도둑 누명과 강간, 희롱, 성폭행 등이었다. 이렇게 고된 노동으로, 도둑 누명으로, 상습적 성폭행으로 이미 상처받은 소녀들이 찾아갈 곳은 성매매 시장이었다. 1960~70년대에 성매매 여성의 많은 수는 바로 '식모' 출신의 소녀들이었다.¹⁶⁾

이렇게 당시 식모의 처지가 매우 열악했음에도 『여원』에서는 식모들의 인권이나 그로 인해 야기된 사회문제나 이에 대한 대책 논의 등과 관련된 것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식모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본격적인 기사도 드물거니와 설령 다루고 있다하더라도 식모를 소재삼아 가정문화에 대한 계몽을 강조하거나 혹은 식모 관리법 등에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식모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사회적 명사들의 논조는 대략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김남조는 모성은 본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일을 식모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고¹⁷⁾ 최이순은 「부업살림에서 본 빈곤」이라는 글에서 여성의 놀고 먹으려는 성정과 허례를 뿌리뽑아야하며 식품 저장의 과학화로 식모 두기 등의 구습을 타파할 것을 강조한다. 오상원은 주부가 식모를 두는 버릇을 가진 것은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훈계한다.¹⁸⁾ 이런 사회 지도층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주부, 학생이 함께 하는

였다. 1968년 2000원을 받는 식모의 경우도 볼 수 있었지만 1968년 10월 현재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만1천640원이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970년 교환수 21,000원, 판매직 11,470원, 직조 편물공 8,500원 등 다른 직업의 월평균 임금과 비교한다면 아무리 식비와 주거비가 해결된다고 하여도 식모들이 받는 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김정화, 위의 글, 90~91쪽.

16)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107~118쪽 참조.

17) 김남조, 『어머니는 언제나 강하다』, 61년 5월호.

18) 오상원, 『여성의 약점 칠항목: 의지하려 한다.』, 1960년 12월호, 88~102쪽.

좌담회에서도 가정생활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식모를 둘 수밖에 없으므로 빨리 가정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¹⁹⁾

즉 『여원』에서 담론화되고 있는 식모란 경제, 사회적인 현실이 만들어낸 소외 계층이라기보다는 불편한 가옥구조와 허례가 많은 가정문화로 인해 수지가 맞지 않는 살림에도 둘 수밖에 없는 군식구이고 모성을 발휘할 기회를 앗아가는 가정의 침입자이다. 또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에 주인 입장에서 계도하고 가르쳐야 할 관리감독의 대상일 뿐이다.²⁰⁾ 때문에 식모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남성들도 동참하여 하루바삐 생활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 『여원』의 주요 논조이다. 이런 논조는 『여원』의 주 독자층을 직접 식모를 다스리는 주인계급이라는 계급화된 위치로 산정했기에 가능한 접근이다. 이렇게 식모 폐지담론에서 계급화된 시선에 포착된 식모는 가정에 폐해를 끼치는 존재이며 무식하고 비경제적이며 비위생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여원』의 개간호에서부터 연재되고 있는 만화 「왈순아지매」²¹⁾에

19) 「좌담회 가정생활의 합리화와 미화」, 1960년 11월호.

20) 식모를 다루는 기사들 대부분에는 주종의 관계에서 식모가 누리는 생활조건, 사회악은 결국 식모들 스스로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각성이 없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1966년 5월호에는 65년 3월에서 66년 2월 사이 식모의 절도사례 560건, 어린이 유괴사건 30건, 지방에서 무단가출 242명 등이라고 다루고 있다. 그밖에 식모 관련 문제로 아이 살해, 유괴, 도둑질, 주인남자와 간통, 살림 탕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사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당시 사회문제였던 주인들의 식모 린치 및 살해, 도둑질 의심 등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면서 구체적인 사건 수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인진, 「식모, 이 변함없는 인권의 푸대접」, 1966년 5월호 이외에 관련기사 마해송, 「한국여성의 비극」, 1956년 7월호. 「좌담회 '식모' 생활개선을 위한 주부들의 공동연구」, 1958년 8월호.

21) 「식모살이 육년이라 나이도 서른이 넘었잖나 말이다」로 보아 서른 정도로 추정되는 “왈순아지매”는 경상도 출신의 식모이다. 순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쾌활한 왈순아지매는 대가족인 주인집 식구들의 사고관과 가치관을 변모시킬 만큼 주체적인 식모이면서 당당한 한 식구로 그려진다. 뿐만 아니라 ‘서울띠기’, ‘평양띠기’등 같은 처지에 있는 식모나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도 주도적이고 명랑하게 꾸러나가는 인정이

등장하는 주인공 왈순아지매처럼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주체적이기에 주인공들의 기풍마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식모는 현실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여원』에서 식모 폐지담론을 확산시키고 독자를 계도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서구의 주부’이다. 여러 가지 코너를 통해 서구 여성들의 삶을 소개하며 주로 초점화하는 것은 그녀들의 살림솜씨이다. 서구 어느 나라를 소재로 삼더라도 선진국의 주부들은 항상 알뜰하고 검소하며 식모를 두지 않은 채 직접 살뜰히 가사를 챙기는 완벽한 여성들이다.²²⁾ 이런 방식의 소개가 거듭될 때마다 결론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인격적 약점이다. 서구의 현대화된 생활 방식이나 살림 여건, 사회적인 분위기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담론의 중심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싫어하며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낡아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귀결되곤 한다.²³⁾ 결국 이런 류의 담론의 기저에는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린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 “왈순아지매”는 1955년 『여원』의 개간호부터 실리던 만화로 후에 대한일보, 경향신문을 거쳐 2002년까지 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인기만화였다.

- 22) “부지런한 미국여성”은 식모도 없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가정을 꾸려나간다. 아무리 기계화되어 있는 생활환경일지라도 그 아무진 살림솜씨에는 빈틈이 없다. 집안으로 들어가면 먼지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고 아이들도 모두 깨끗하고 청결하다. 이렇게 가정을 완벽하게 가꾸고도 남는 여유시간에는 남편과 동반하여 회합에도 참석하는 등 교양있는 그녀들의 생활은 부지런하고 알뜰하기 그지없다. 서독통신에서 소개하는 독일여성은 일차대전 후 치마길을 일 인치 줄이면서까지 경제에 봉사했던 애국심이 뛰어난 여성들이다. 또 취재 중에 만난 서독의 한 의사부인이 우리나라 여성들과는 달리 부유하지만 식모도 두지 않고 아이 넷을 능숙하게 돌보는 모습에 감복했다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부지런한 미국여성』, 1960년 7월호, 171쪽 참조. 『특집-계량생활 1961년부터』, 『서독통신-내가 만난 독일여성들』, 1960년 12월.
- 23) 여기서 식모의 필요성을 다루는 데 있어 주부의 직업 유무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기획기사 자체가 그저 몇 명의 필자에게 의뢰하여 여성의 약점을 7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다는 방식부터가 상당히 가부장적인 담론 양태라고 볼 수

생활을 지표로 근검절약과 내핍생활, 계량화된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사고의 전환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가 정책이 호도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국가의 운명이 주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로까지 비약되어 ‘모성’을 기반으로 하는 희생과 봉사로 가정 경제를 일구고 나아가서는 이를 솔선하는 주부만이 국가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기반을 잡을 수 있다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그렇기에 이를 가정 안에서 실재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한 가지로 ‘식모’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공공의 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여원』에 등장하는 식모는 가정에서 불필요한 불순물로 구축(驅逐)된다. 식모는 식구이되 한 상에 밥을 같이 놓고 먹는 평등한 식구는 아니요 당당하게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자 착취의 대상이면서도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꿰고 있는 은밀하고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 식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코너에서 대외적인 포우즈는 식모를 가정의 부(副)주부로 여기고 주종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의 신성한 직업이라고 인식하고자 표방하고 있으나 속내 가운데 그것은 “보통 주부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식모관”이며 식모와 관련된 사회문제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기에 벌어지는 현상일 뿐인 것이다.²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퇴치하고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을 위한 길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위생적인 생활방식을 주부의 손으로 직접 일구는 길 뿐이다. 때문에 이상적인 가정에서 식모는 있어서는 안 될 불필요한 존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있겠다. 오상원, 앞의 글, 1960년 12월호, 88~102쪽.

24) 안춘근, 『좌담회 ‘식모’를 읽고』, 59년 9월호 참조.

3.2. 도시의 범죄 예비 집단 ‘여공’, ‘여차장’, 그리고 ‘윤락여성’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는 그간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지방, 농촌여성들에게까지도 적극적인 계몽의 손길을 보내며 국가 재건사업의 전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여원』에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한 예로 근대화 프로젝트가 작동되기 전 1950년대 후반에 실렸던 도시화와 인구정책에 대한 논조들은 대개가 ‘서울’을 ‘기만과 전략’, ‘마수와 함정’, ‘날치기와 쓰리’가 극성을 부리는 기묘한 곳²⁵⁾이며 상경하여 방직공장에서 생활하는 여성의 모습 또한 ‘비참한 생활’ 그 자체²⁶⁾로 그려 도시, 특히 서울로의 인구 집중에 견제를 꾀

25) 1959년 한해동안 서울로 상경한 인구는 321,629명이며 드디어 1959년 12월에 서울시 인구가 200만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이는 해방 후 매년 20만명의 증가율을 보인 결과로 “서울가자. 가면 설마 산 목숨 풀칠이야 못하랴”는 생각으로 상경한 인구들로 그 결과 30만의 실업자가 추정되었고 이에 따른 취직 사기가 당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렇게 서울로 과잉 집중되는 인구를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 언론에서는 ‘서울’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린다. “서울이란 생존경쟁의 축도요 마술의 천지다. 찬란한 문명이 있고 희열의 향연도 있지만 기만과 전략, 마수와 함정이란 암흑도 있다. 막연한 동경심만 갖고 선불리 상경하였을 때 그 암흑의 유혹은 당신을 얽아매려 한다.” 『서울은 당신을 노린다』, 1960년 4월호, 118~119쪽.

26) “빠져린 가난을 등지고 도시로 나가는 여성이 차차 늘어갑니다. 시골 처녀가 도시에 나가서 할 일이 무엇있겠습니까? 방직 공장에 들어가는 정도지요. (...) L은 내가 아는 전형적인 농촌여성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까닭으로 진학을 못하고 있다가 ‘와이샤스’ 한 벌을 선사하고 방직 연습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여덟시에 들어가면 밤 여덟시에, 밤 여덟시에 들어가면 다음날 아침 여덟시에 나오니 건강이 형편없지요. (...) 보수는 6천환, 몇이 열려서 방 한칸 얻고 자취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월급이 차차 올라 지금은 약 이만환을 받긴 합니다만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지고 서울가면 방직 공장에 취직할 수 있으려니 올라왔다가 서울역에서 투쟁이의 희생이 되는 예가 많은 모양인데 이같이 향토를 버리고 서울로 가는 까닭이 무지와 허영도 있지만 주로 가난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공장에 취업한 전형적인 농촌여성의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 경성 방직공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응모조건은 만 17세 이상, 결원시 수시 견습공 채용형태로 모집하였다. 전형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술고시, 처후는 3~4개월간은 무보수, 출산시 전후 2개월 휴가와 반액의 월급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결혼시에는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농촌의 젊은 여성들을 ‘노동하는 손’으로 만들기 위한 포섭은 도시를, 노동의 일상을 낭만이 가득한 매혹적인 생활 그 자체로 묘사한다.

이는 1962년 9월호에 실린 익명의 여공이 쓴 일기에서 그 의도를 뚜렷이 살필 수 있다. 이 수기는 다른 독자수기들과는 달리 필자가 익명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그 진실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제약회사 유유산업 현장이라고 소개된 화보와 일기는 농촌의 소녀들에게 그야말로 공장생활에 대한 환타지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첨부된 일기는 ‘청결’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즐겁게’ 노동하는 하루를 ‘명랑한’ 어조로 그리고 있다.²⁷⁾ 그러나 1957년 12월호와 1960년 4월호에 소개되었

퇴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적으로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공들의 대부분은 지방출신의 과부와 노처녀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방직공장여공들의 생활-가난픈 손으로 지탱되는 하루의 생계』, 1957년 12월호, 310쪽, 심삼만(경북 영주군 장수초방사업소 내), 『농촌여성에게 더 좀 빛을』, 1960년 4월호 참고.)

참고로 “은행, 회사원, 기자, 공무원, 점원 등의 베이스는 3만원부터 4만원 정도이며 교원과 기술자는 좀 낮겠지만 대체로 이 정도의 계층이 직장 여성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기사(조청사, 『도시여인의 경제 속』, 1959년 5월호)를 통해 당시 사무직 직장여성의 수입에 비하면 여공들의 수입은 평균보다 훨씬 이하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여성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전자, 전기, 섬유 및 방직, 제약 등의 사업장은 대부분 유사한 노동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강제전업, 휴일노동, 위대한 작업 환경, 임금체불 등이 그것이었다. 이외에도 작업장 내에서의 폭언 및 욕설, 폭행, 지나친 작업감독, 성희롱을 포함한 인권유린 등이 존재했다. 이같이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부의 억압적 노동정책의 지원을 받았다.”는 문헌에서도 당시 여공들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정진성·안진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86쪽.

27) 그 내용은 대략 ‘아침에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든 머리 밑에는 밤에 읽다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다. 남향 들창을 활짝 열어 심호흡을 한 후 기숙사 앞의 포인타 메리와 아침 인사를 나누고 예쁜 화초에 물을 준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식당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살라드와 새우튀김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다. 맛있게 아침식사를 끝내고 조간신문을 잠깐 훑어본 후 공장으로 향하면 오늘

던 여공들의 생활을 상기해보는다면 시간적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1962년의 여공의 하루가 과연 이렇게 많이 변모되었을까하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인 사회현실과 충돌하면서까지 이런 식의 기사가 등장하는 맥락에는 분명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가정을 세워볼 수 있다. 이 시기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농민층의 지지기반 확보였고, 이는 농민을 농촌에서 잘살게 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산업화의 역군으로 동원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와 민족 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1960년 초 경제 성장의 동력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저임금과 저곡가 정책, 그리고 노동권 유보를 전제로 하는 강력한 노동통제 정책에서 나왔다. 이같은 사회정책은 강력한 국가권력 아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결합하여 압축적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다. 1960년대의 경제성장의 핵심에는 이렇게 농민층의 헌신과 노동의 착취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산업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가난한 농촌의 딸들,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수출 위주의 공업화 과정에서 ‘공순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생계비를 벌고 저임금 저곡가정책 아래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 획득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당한 여성들은 취업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몸을 팔 수 밖에 없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성을 팔아 외화를 획득하면서도 불법의 그늘에서 사는 사회의 최하위층이 되었다. 특히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에의 새로운 희망으로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이는 내가 하는 일에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는 중간엔 사장님께서 사주신 새 피아노로 레크리에이션을 하기도 하면서 일을 마친다. 그리고 그 후엔 취미로 하고 있는 코러스 활동에서 나의 재질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포도원에 들르기도 한다. 밤에는 어제 읽다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바틀러와 스칼렛이 재회하는 장면을 읽으며 잠이 든다’는 일기형식의 글이다. 『어느 여공의 생활 일기』, 1962년 9월호.

여성'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촌의 가부장적 가족의 딸들로 가족생계를 위해 기지촌으로 흘러들게 되었던 것이다.²⁸⁾

이렇듯 “60년대 변영의 그들에는 암전한 갑순이가 인생을 망쳐야 했던” 상처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60년대를 총정리하는 특집기사의 한 구절에서 이회호는 “윤락여성의 문제는 60년대 전반을 계속 소란하게 한 사회문제였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윤락여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들의 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성병의 만연과 아울러 사회악이 더욱 더 야기됨으로서 그 심각성이 사뭇 컸던 시대가 60년대였다. 보사부는 이 문제에 꽤 골치를 앓고 있다.”²⁹⁾라는 보도로 당시 윤락여성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여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가. 62년 11월호에 “우리 동네의 미담”이라는 주제로 실린 경기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윤원례 씨의 『한 윤락여성에 얽힌 이야기』라는 독자수기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다.³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생을 모르다가 전쟁에서 부모를 잃

28) 정진성, 안진 외, 앞의 책, 67~68쪽.

29) 이회호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특집 60년대 여성혁명: 노라는 집을 나와 직장으로』, 69년 12월호, 109~110쪽.

30) 그 사연은 대강 다음과 같다.

단란하고 유복하게 살던 남매는 전쟁 중에 부모를 여의게 된다. 하루 아침에 7살 짜리 남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17세 소녀는 식모, 행상을 비롯하여 양장점 직원 등을 전전하지만 그때마다 불운하게도 여러 가지 일에 휘말려 모은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동생을 대학까지 보내주겠다는 남자에게 속아 처녀성을 상실하고 마침내 병까지 걸려 몸져눕게 된다. 당시 소녀가 살던 곳은 파주.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락촌이 성행하던 곳이었다. 몸이 병들어 더욱 경제적인 위기에 몰리게 된 그녀는 포주의 유혹으로 윤락녀가 된다. 그렇게 윤락녀로 전전하던 도중 다시 병을 얻게 되어 빛만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동생의 공부마저 중단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를 알게 된 동네의 유지들이 이 불운한 남매의 사연을 안타까이 여겨 경제적 도움을 주고 그 소녀 역시도 미용기술 습득으로 이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윤원례 (경기 파주), 『한 윤락여성에 얽힌 이야기』, 62년 11월호, 378~

고 온갖 고초를 겪는 남매의 삶은 전후 많은 전쟁고아들의 스토리이기도 했을 것이다. 닥쳐오는 생활고 속에 몸을 파는 전락을 겪으면서도 “이왕 버린 몸이요, 죽기 밖에 더하랴 싶었다. 더구나 동생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다.”³¹⁾는 자기 위로로 동생을 돌보는 누이의 이야기는 어쩌면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풍토 속에 용인될 만한 미담으로까지 생각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수기의 주인공은 천혜의 도움으로 인생의 나락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운이 좋은 특별한 경우였기에 잡지의 한 면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던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런 벗어나기 힘든 굴레를 떨치기 위해 윤락여성들이 찾아갈 수 있었던 곳은 부녀보호소와 같은 사회시설이었다.

67년 3월호에 실린 『三백명의 사위를 얻고』라는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시립 부녀보호소 소장의 수기는 윤락여성들의 갱생의 길을 돕기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윤락여성들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우리 시설의 담장이 높아 교도소의 담장 같다고들 한다.

“담장이 꽤 높군요. 현대적인 교회시설은 이런 건조물의 형태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의 소감이다. 그 이상적인 견해를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덕의 사람들의 마수를 떨리하고 격리 보호하자면 부득불한 일이며 담장이 높은 것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 담장 안에서 욕된 생활을 누우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

381쪽.

31) 위의 글, 380쪽.

아뭏든 붉은 담장이 미관상 그리 좋은 편은 되지 않아서 녁쿨장미로 담 둘레를 완전히 싸버릴 계획을 세우고 묘포를 마련하여 녁쿨장미의 싹을 내고 있다. 일년 이년 이렇게 몇 해가 지나가면 이 붉은 담은 녁쿨장미로 호사스러운 꽃담으로 변할 것은 틀림없다.

-김용아, 『三백명의 사위를 얻고』, 67년 3월호. 190~195쪽.

위의 수기에 등장하는 ‘높은 담장’은 윤락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보호되었다기보다는 감금된 형태로 격리된 여성들이 새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란 보호소에 있는 동안 “남보다 덜 자고 덜 놀고 더 많은 시간을 자기를 키워나가는 시간으로” 삼아 “열심히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는 “인간개조라는 정신운동으로써”³²⁾ 극복하는 길 뿐이다. 그러나 사실 그녀들이 담장 밖으로 나왔을 때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섞여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갱생을 위한 훈련을 받은 보호소의 여성들은 전과 등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경력이 있는 “서산개척단” 남성들과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서 “기차로 약 세 시간, 버스로 한 시간 반, 또 걸어서 몇 십분” 거리의 “모월리 개척부락”으로 이주한다. 이런 지정학적 거리는 국가사업의 개척자라는 명목으로 다시금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장치는 아니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또한 윤락여성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일생을 헌신한 필자에게마저도 과연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혹과 불안의 시선이 중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높은 담장’과 같은 사회 인식과 윤락여성이 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 등에 대한 고민이 없

32) 1963년 5월호의 특집 『우리의 구원은 단결이다』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방향은 ‘단결’ 밖에 없으며 이 단결심을 양양시킬 구체적인 방안으로 백철은 『인간개조하는 정신운동으로써』라는 글을 쓰고 있다. 『특집 우리의 구원은 단결이다』, 1963년 5월호.

는 채로 ‘닝쿨장미’로 겉포장만 그럴싸하게 치장하여 현실을 봉합하는 대처방식이 가져올 문제점은 담지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미래를 타자화하여 의식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³³⁾

이렇듯 『여원』에 등장하는 윤락여성에 대한 시각은 이중적인 태도로 미묘하게 분열되어 있다. 서구사회의 예를 들어 설명할 때는 윤락여성 역시 국가 재건의 선두주자로 그려지고 있으면서³⁴⁾ 정작 우리 사회의 기지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타락을 동경하는 하층사회의 소녀들”이 “돈맛이 부풀어 창녀가 되고저 한다.”고 단언한다.³⁵⁾ 정절과 순종에 대해 유교적 규범에 근거하여 철저한 우리 사회 풍토에서 “타락을 동경”하는 “소녀들”이 과연 얼마나 존재하겠는가. 단일민족과 순수한 혈통이라는 인종, 민족주의적 강조가 강한 우리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33) 1964년 9월에 있었던 이 합동 결혼식은 당시 화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한 후일담을 다른 여성잡지에서조차 좌담회형태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좌담회 참석자들은 그들이 현재는 개척정신으로 적응하여 살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2세대들은 부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걱정에 찬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런 시선의 바탕에는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좌담 여인의 진실』, 『여상』, 1964년 7월호.

34) 전후 독일여성들의 부흥 노력을 소개하면서 미국 불란서 군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부녀자 혹은 “뎨싸”, “카바레”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직업상 화려한 화장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는 소박하고 나머지 여성도 화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서 원조를 받아 독일식으로 부흥하고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문식, 『부흥을 밑받침해 준 서양 여성들의 힘-우리 한국 여성들은 그들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다』, 1958년 2월호. 50쪽.

35) “타락을 동경하는 하층사회의 소녀들이 곧잘 동두천행 기차를 타고와서 돈벌이의 근거를 닦는다는 것이다. 요즘 창녀의 성분은 대개가 남의 집에서 식모를 하다가 좀 더 나은 돈벌이를 위해 뛰어드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시골소녀가 서울의 어느 집에 살다가 그만 돈 맛은 들고 그 돈 맛이 부풀어 창녀가 되고저 한다.”

잡지는 동두천에 근무하는 학사경관 최용식 경사의 사연을 ‘텍사스의 보안관’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미군의 친근한 해결사’이며 민간인과의 교류에 앞장서는 한편 미군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한국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인정있고 능력있는 경찰관으로 그리고 있다. 『東豆川에 세워질 頌德婢』, 1968년 10월호.

기지촌 여성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에는 분명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밖에도 『여원』에서는 여차장, 기지촌 여성, 율락여성에 관한 내용을 간혹 르포 형태로 다루고 있는데 이때 주의해서 볼 것은 서술자의 태도이다. 취재원을 취재하고 있는 서술자는 취재 대상과는 확연히 다른 계층의 입장에서 철저히 관찰자의 태도로 ‘그들’을 ‘동정’하거나 ‘힐난’한다.

그녀들이 여차장이란 직업을 갖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어려운 가정환경이요, 둘째가 그녀들의 바람난 허영이다. 부모의 동의를 얻고 서울로 오는 수요도 많으나 무단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적지않은 수요의 소녀들, 어쨌던 이들이 막상 서울역에 발을 디디고 보면 사실 갈 곳이 있을 리 없다. 집에서 타 왔다가 훔쳐내 왔다가 간에 몇 푼 안되는 돈으로 몇 곳을 찾아 헤매봤자 별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적당한 보증인만 찾으면 그날부터 의식주가 해결나는 여차장이 그녀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준 은혜와 같이 고마운 것이 된다. (...) 또 벽촌 시골에서 자란 그녀들은 자동차를 늘 타면서 돈벌이 할 수 있다는 호기심이 강열하게 작용하여 하나의 철없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업친데 겹친데다 친구들의 꼬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는 새로 나온 택시같은 합승(마이크로·빠스)을 타고 다니는데 수입도 괜찮고 용돈도 많이 생겨. 너 집에만 붙어있음 뭘하니! 얼마나 재미 있는데. 너도 나하고 같이 차장으로 나가자.” 이런 말은 일원 한 장 용돈으로 쓰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의 딸들의 가슴에 바람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사춘기의 그녀들에게 “그뿐인 줄 아니? 남자조수들이 차마다 한명씩 있는데 멋있는 애도 많단다. 사귀기도 쉽고 또 뭐, 그렇구 그래!”란 말은 바람을 광풍으로 만들어 결국 안아가고는 못배기게 하고 만다.

알고 보면 그녀들이 받는 보수가 형편없이 적다. 시외빠스차장이 1,500원~2,000원, 시내빠스차장이 800원~1,000원, 합승차장이 500원~800원, 이렇게 적은 보수를 위해서 그녀들은 일하고 있다.

“매달 10일에는 근무성적이 좋은 차장 7명을 표창하고 1인당 5백원씩 상금도 주지요. 그리고 오래 근무하면서 성적이 좋은 차장에게는 은행에 적금도 들어주면서 그녀들 앞날까지 회사에서는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京畿旅客運輸株式會社の 전무취제역 姜恩熙씨의 말이다. 이 회사에서는 여차장들의 지정합숙소를 곳곳에 마련하고 있으며 식대로 매일 60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도 하루에 8시간내외이다. 이만하면 시외버스 차장들은 어느 정도 노동의 댓가를 받고 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셈이 된다. 누구나 원거리 여행을 나설 때는 기쁘고 가쁜한 마음으로 여정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시외버스 차장들의 손님에 대한 서비스는 아직 제 궤도에도 오르지 못해 불쾌한 여행으로 끝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사회의 단면, 여차장』 62년 11월호. 189쪽.

“혁명정부에서는 명량한 교통질서를 확립시킴으로서 명량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남차장을 여차장으로 대치”³⁶⁾시켰다는 소개로 등장하는 이 기사를 보면 당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급증했던 여차장 역시 식모와 함께 소녀들이 가장 구하기 쉬운 일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식모와는 또 다르게 여차장은 성적으로 방종한 타락의 대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해졌다. 그것은 차비 빵땅을 우려한 몸수색이나 운전수들은 안내양을 하나씩 데리고 산다는 소문,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수의 여차장들이 과로를 견디다 못해 윤락여성으로 전락했다는 사실³⁷⁾ 등이 그런 이미지들을 산출해냈다.

그러나 『여원』에서는 위의 글에 나타난 보도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 측에서는 최대의 복지를 베풀고 있지만 결국 여차장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그들 스스로 교양이 부족하기에 생기는 문제들로 복속시키고 있는 계급적 입장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는 식모, 여공, 여차장 등

36) 『사회의 단면, 여차장』, 62년 11월호. 189쪽 재인용.

37) 『특집 르뽀 그들은 아직도 그늘에 있었다: 여차장』, 1966년 3월호 158~163쪽 참조.

주변부 여성에 대한 국가의 담론이 일차적으로 정신적, 도덕적 규정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는 것과는 일치하는 국면이다.³⁸⁾ 그리하여 가정의 통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타자로 간주되어 산업화시기 식모-여공-윤락여성은 하층사회 여성에 대한 연속적 담론으로써 항상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일컬어지게 된다.³⁹⁾

다만 내가 종삼에 가서 놀란 것은 다른 중앙지대는 모두 철거시켰으면 서도 왜 유독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이 구질구질하고도 불쾌한 거리는 방임하고 있나하는 의문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거리는 허가가 나온 곳이라 한다. 단지 창녀들이 밤에 거리에 서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만은 금지되고 있다는 어느 창녀의 말이다.

그 거리에 서성대는 사람들은 노파나 아이들까지도 모두 불결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좁고 낮고 마치 두더쥐가 사는 곳을 연상시키리만치 음산한 방마다 값싼 화장품의 냄새가 오히려 야릇한 체취와 더불어 역겨웠다.

-金玉橋(시인), 『빨간 燈불빛의 어두운 人生』, 1962년 12월호.

종로 일대나 서울역 일대를 비롯해서 서울 각처에서 몸을 팔고 사는 윤락여성들에 대한 보호, 선도책이 착수된 점이다. 서울시 중구 수유동사번지에 있는 시립보호소는 대낮에도 굳게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 그들의 도피를 방지하고 있다. (...) 시내 몇몇 구역을 지정지역으로 하여 미처 보호소에 수용되지 못한 창녀들을 모아놓고 민가에 함부로 침투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였다. 윤락여성들을 조사해보면 대개 생활고가 직접 원인인 것 같다.

윤락여성선도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3백74명중 역시 국민학교 출신이 그중 많아 113명, 그러나 대학 졸업생도 한명 있어 허영이

38)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반(反) 역사』, 이매진, 2006, 154쪽 참조.

39) 위의 책, 158쪽 참조.

윤락의 원인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주목되는 점은 윤락 전에는 대개 처녀였다는 것이며(214명) 미망인은 415명으로 의외로 적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유부녀도 22명이 있어 주목을 끌었다. 전락의 원인은 친구의 권유가 131명, 남의 꺾임에 빠져서가 109명, 살 수 없어서가 76명 등의 숫자가 나타났다.

경제가 근본적 원인임은 말할 필요없으나 직접 동기는 친구의 꺾임에 빠진 것이 가장 많다는 대답이다. 젊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들의 교우 관계를 특히 조심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윤락여성의 행복관을 조사해보면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정답게 사는 가정”이라고 했다. 110명은 “좋은 남편과 살아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록 일시적 실수로 윤락의 길을 걷게는 되었으나 창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역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여성에게 가정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송건호, 『도시 사회의 병리』, 62년 12월호, 102~106쪽.

결국 이런 르포나 취재 기사를 통해 내려지는 결론은 윤락여성들마저도 회귀하는 것은 “좋은 남편과 살아 보는 것”이요 “정답게 사는 가정”을 꿈꾼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독자들인 중산층 여성들에게 현 모양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 거리에 서성대는 사람들은 노파나 아이들까지도 모두 불결해 보이는 인상”이라는 감상 차원의 접근으로 대상을 응시하는 서술자의 시각은 독자의 시선과 동일시되어 사회 저편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철저히 타자화시킨 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구경함으로써 지금 처해있는 자신의 이 주부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안온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그리하여 정숙한 아내로 ‘낭만적 사랑’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독자에게 은연중에 훈육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문제를 철저

히 개인의 것으로 복속시키고자 하는 언술에 다름 아니며 소외계층 여성들을 주변화하고 멸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특히 기지촌 여성 문제에 있어서 국가에 의해 호명된 섹슈얼리티는 조국의 국가관, 여성관을 소개하는 여자 외교사절이라고 칭해지며 양국간의 가교가 되는 외교적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으리라 하는 추임새로 이용된 후 그 필요성이 시효를 다하면 사회에서 처치 곤란한 골칫거리집단으로,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치부되었던 과거 정치적 맥락과도 꽤를 같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담론으로 기지촌 여성들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차단당했으며, 주변적인 지위로서 경멸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캐서린 문의 지적에서와 같이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여성을 포함해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 역사를 잊고 싶어한다.⁴⁰⁾ 물론 기지촌 여성들의 노동과 삶이 한, 미 안보관계를 공고화하는데 밀접하게 연관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 전면적으로 들춰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내 미군을 중심으로 한 매매춘은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 거리를 다니며 미군들을 호객하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미군을 통해) 두 정부에 의해 후원되고 규제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백만명 이상의 한국 여성이 기지촌에서 성을 팔았고, 셀 수도 없는 한국 여성과 미국 병사

40) 사실 기지촌여성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주변화되는 낙인을 견뎌야 했다. 따라서 기지촌을 나와 더 큰 사회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며, 스스로를 ‘비정상’으로, 기지촌 바깥 세계를 ‘정상’으로 표현한다. 일단 기지촌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수순이라고 한다. 기지촌에서 잠시 일한 후 고향으로 되돌아갔던 김양향 씨는 사촌중 한명에게 “우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고향에서 쫓겨난 결과로 여성들은 미군과의 결혼을 최고의 목표로 삼게 된다. 그들의 희망은 한국에서 경험한 가난, 수치, 소외를 뒤로 한 채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미군의 합법적인 아내로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캐서린 문, 이정주 옮김, 『동맹속의 섹스』, 삼인, 2002.

들이 아메라시안(Amerasian) 자손들을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를 경시하는 시선 때문에 철저히 주변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성’이기도 하다. 기지촌 여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취재와 연구를 했던 캐서린 문에 따르면 여성문제를 다루는 활동가와 학자,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여성들을 대변하는 이들조차 기지촌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매춘의 삶을 살게 되었으며 도덕적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와 클럽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⁴¹⁾ 기지촌 여성에 대한 이런 식의 무관심은 한국 사회가 갖는 하나의 편견을 생산해내는 결과로 연결된다. 그 편견을 배태할 수 밖에 없는 그 깊은 속내에는 반공주의와 국가 안보의 수사학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사회의 지원을 결집시킬 수밖에 없었던 데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기지촌 여성들의 처지를 조사하고 미국 기지촌 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기본과 미군의 필요성 및 역할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⁴²⁾

이런 관점의 연결 선상에서 『여원』에 등장하는 담론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결혼’에 관한 부분이다. 이 당시 ‘워브라이드(War Bride)’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한국여성들은 전쟁의 부산물로 미국인과 결혼하게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성 매매에 관여하지 않고 미군 군속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여성이나 업소 또는 클럽에서 일하다가 미군 남자친구 또는 남편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간 여성들의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다른 한국인들의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었다.⁴³⁾ 전후에 이루어진 국제결혼의 형태는

41) 이와 같은 내용은 캐서린 문, 『한국 기지촌의 여성』, 『한국현대여성사』, 정진성, 안진 외, 한울, 2004, 121~140쪽이나 캐서린 문, 『동맹 속의 섹스』를 참조할 것.

42) 캐서린 문(2002), 앞의 책, 30~31쪽.

대부분이 미군과의 결혼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원』에서 국제결혼의 문제점 그 자체는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된다.

기사에서 보면 해방이후 늘어난 국제결혼은 1961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과의 결혼만 750쌍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더불어 이 결혼에서 미국인 남자는 ‘군인이 태반’이고, ‘재혼의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 여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드문’ 것 같다는 당시 영사관 결혼과 직원의 증언을 함께 실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결혼과 도미 후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취재는 거의 없다.⁴⁴⁾ 이렇게 워브라이드의 미국생활과 2세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없는 대신, 고학력 전문인의 국제결혼 성공사례만을 소개하며 미국과의 희망적인 관계에 대해 낙관어린 전망을 제안한다. 이 기사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아메리카의 가정을 동경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만 있으며 이민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철저히 한국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결혼에 성공한 사례로 이광수의 장녀 이정화를 비롯하여 한결같이 모두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좋은 가문의 후예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들의 예시만 나열

43) 캐서린 문(2004), 앞의 글, 정진성, 안진 외, 위의 책, 123쪽.

44) “국제 결혼 부부의 행복한 결혼 모습”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화보에는 전후 미국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결혼, 유학, 이민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이 한국인과 미국인의 개인적 관계 형성이라는 점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다루고 있다.

“미국에는 워브라이드를 포함하여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으나 인종적인 장벽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미국 유학생들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미국인과 관계 형성이 잘 안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전쟁, 후진국이라는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견 때문에 힘들게 생활한다. (...) 워브라이드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잘 끼지 못하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로 교제가 순조롭지 못하다. (...) 그러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 미국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은 잘 적응하고 있다. 다만 그 2, 3세대들은 모국에 대한 추억도 없고 관심도 없이 성장한다.” 『국제 결혼-사랑의 승리』, 『항수에 우는 코리아들』, 1962년 4월호 참조.

하면서 국제결혼 후 과정을 맞는 한국여성들의 문제는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개인의 문제이며 그 해결책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정도를 들고 있다. 결국 국제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될만한 외국어 구사’와 ‘확고한 신념’ 등 개인의 노력이 전적인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전쟁이후 미국식 제도와 사고방식은 사회의 전 부분에 파급되었고 전쟁 직후 미국의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로부터 시작된 대미의존은 거의 절대적이었다시피 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사회에 펼쳐진 선진적인 외래문화에 대한 충격과 매혹은 실로 양가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서구적인 것, 특히 미국적인 것을 동경하는 사회의 분위기 역시 『여원』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소재이다. 『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동경을 기저에 둔 채로 미국의(특히 미국 여성의) 가정, 문화, 결혼, 직업관 등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고, 한국인과 미국인의 개인적 관계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라는 외래문화는 우리에게 해방군, 원조국의 모습으로 친밀하게 다가왔지만 든든한 지원자인 한편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혼란을 동시에 야기하는. 그야말로 ‘친밀한 적’이며 우리의 근대성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다.⁴⁵⁾ 그렇지만 여원에 등장하는 서구 담론은 항상 이상적인 모델 그 자체이고 이는 군사정권이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꿈꿨던 국가 재건방식이기도 하였다. 서구적인 근대화를 모델로 하면서도 전통문화가 정신적 기치로 중심을 잡는다는 정치적 담론은 잡지 속에 이상적인 주부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독자들에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고 또한 중산층 여성 독자를 사회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혼욕적인 맥락에서 『여원』에 등장하는 여성 소외 계층은 다시 한번 더

45) 김연숙, 『국가의 경계에 서있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의 몸-시각, 쟁점, 역사』, 한국여성연구소, 창비, 2005, 200~203쪽 참조.

소외당하게 되는 것이다.

5·16 이후 군사정권은 경제성장을 위한 총동원 체제로 사회를 재편하는 동시에, 이전 시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상구호를 낭비적이며 비생산적인 정책으로 간주해 최소화하고, 전후 난립한 구호시설을 감축했다. 이처럼 군사정권은 경제성장을 위해 낙후된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근대적이고 선진적인 가치의 도입을 중시했으며 근대적 가치는 곧 계획성, 계산가능성, 효율성 등으로 표상되었다.⁴⁶⁾ 이런 과정에서 여성 소외 계층은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낙후된 과거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는 계도와 계몽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국가의 부름으로 산업화의 일원이 되기를 소원하여 상경했던 어린 소녀들은 그 근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사회 하층 중에서도 더욱 천대받는 윤락여성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연속적 고리의 현실은 여성잡지 속에서마저 철저히 타자화되고 외면된다. 그리고 이들을 타자화된 대상으로 응시하는 서술자의 태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다른 자신의 계급적 위치에 대한 안도감을 유도하면서 ‘현모양처’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다시금 내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여원』의 정체성-근대화 프로젝트의 매개체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여성잡지 『여원』은 국가 재건의 프로젝트의 논리를 철저히 이중화된담론으로 고스란히 일상에 침투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물론 당대의 언론이 국가재건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대하여 어떻게 기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폭넓은 논의의 선상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당시의 여론을 주도했던 여러 매체

46) 김원, 앞의 책, 166~168쪽 참조.

들과의 연결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겠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바는 당시 정치적 배경을 엿고 있는 언론구조에서 생성된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이에 대한 대중적인 수용 과정에는 분명 국민의 정치적 동원과 대중 조작 및 국민의식의 탈정치화 등을 가화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여원』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주체적인 자각에 대한 의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도리어 가부장적 여성관을 더욱 강화시키며 또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식모, 여공, 여차장, 윤락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언설은 분명 여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인 양 등장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정치적인 국가가 작동하고 있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매커니즘을 확장하는 의도가 은폐되어 있다. 여성 소외 계층을 다루는 논의에 숨겨진 의도는 ‘낭만적 사랑’에 만족하는 ‘현모양처’, ‘스위트 홈’의 건실한 주체자로서의 위치가 가장 행복한 것이며 이상적이라는 것을 내면화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 취재 기사나 르포 속에 나타난 서술자와 취재 대상간의 관계는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질서에 따라 구성된 권력관계의 표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를 반복하여 편성함으로써 독자에게 자신의 계급적 위치가 점하고 있는 지점을 재확인시키고 내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화란 새로운 세대가 현재의 지배적인 전통과 가치, 규범 등을 받아들여 내재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회화의 주관자 역할을 하는 매개 중 하나가 바로 매스미디어이다. 따라서 1950·60년대 당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여원』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당대 정치 현실 정책에 대해 충실한 매개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사조를 공급코저 한다”는 창간사의 의도에 맞는 훈육자의 위치를 담당하며 특히 여성독자들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 정책에 걸

맞는 여성으로 사회화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원』의 독자들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왜곡된 표상이 일반 수용자에게 갖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그 존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의문을 조금 더 심도있게 해소하려면 『여원』의 독자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상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전개된 논리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여원』지에 대한 독자의 실제 수용 행위나 경험에 대한 부분은 그 자체로써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女苑』, 1955년 10월(개간호)~1970년 4월호(폐간호)

『여상』, 1962년 11월(개간호)~1967년 11월호(폐간호)

2. 논문 및 단행본

강준만, 권혁남 외 4인, 『대중매체와 사회』, 세계사, 1998.

김정기, 박동숙 외, 『메스미디어와 수용자』,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김정화, 「1960년대 여성노동-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 11호, 2002.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반(反) 역사』, 이매진, 2006.

김행선, 『박정희와 유신체제』, 선인, 2006.

박용옥 엮음, 『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 연구단,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미디어, 2004.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이상록, 이유재 편,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2006.

임지현 외, 『우리안의 파시즘』, 삼인, 2000.

전경옥, 변신원 외 2인, 『한국여성문화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정진성, 안진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 2004.

조은, 조주현, 김은실, 『성 해방과 성 정치』, 2002.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94.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의 몸-시각, 쟁점, 역사』, 창비, 2005.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1963~1970』, 백산서당, 1999.

_____,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_____, 『박정희시대 연구』, 백산서당, 2002.

일레인 김, 최정무 편저,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캐서린 문, 이정주 옮김,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3. 부록- 『여원』에 수록된 식모, 여공, 여차장, 윤락여성, 미망인, 혼혈인 관련 기사

- 56. 3. 특집 미망인은 고민한다.
- 56. 7. 여성의 비극
- 57. 2. 불량소녀란 각인을 씻기 전에
- 57. 11. 여원논단-식모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
- 57. 12. 여성의 죄와 별/방직공장여성들의 생활
- 58. 1. 여성비판 칠장
- 58. 4. 여걸, 여장부, 여사를 해부한다
- 58. 8. 생활 개선을 위한 주부들의 좌담회
- 59. 4. 한국 고아에 대한 해명/우물가의 사회평(사창 근절)
- 59. 5. 잘못을 디딘 소녀의 첫 발/도시 여인의 경제 속
- 59. 6. 사창은 불사조처럼
- 59. 8. 말씨-해방에서 재개봉까지
- 59. 12. 매춘을 어떻게/공장의 울 밑에 선 청춘
- 60. 4. 서울은 당신을 노린다/농촌여성에게 좀 더 빛을
- 60. 6. 농촌여성에게
- 60. 7. 부지런한 미국여성
- 60. 9. 좌담회-신생활 운동의 선봉에 서서
- 60. 11. 천애의 고아들이 운다
- 60. 12. 서독통신-내가 만난 독일여성들/여성의 약점 칠항목/계량생활 1961년부터
- 61. 4. 직업체험안내
- 61. 5. 신 어머니학 입문/독자생활 에세이-식모없는 살림살이
- 61. 12. 가정부업/좌담회-농촌을 밝히는 여성의 힘
- 62. 3. 사생아를 잉태한 처녀들/고아를 울리지 마라

- 62. 8. 특집-지방여성에게 바치는 특집
- 62. 9. 여공의 생활수기
- 62. 11. 사회의 단면 여차장
- 62. 12. 서울에 대한 취재 수기
- 64. 1. 북한의 주부생활/여원상담실-엄마의 재가가 가져온 비극
- 65. 1. 불망기-이곳에 빛을
- 65. 4. 특집 르뽀-여성의 사회견학/독자수기-때묻은 이름 버스여차장
- 65. 5. 르뽀르뽀-한미행정협정 이후 기지촌의 실태
- 65. 6. 필벽재단과 한국고아사업
- 66. 3. 특집 르뽀-그들은 아직도 그늘에 있었다.
- 66. 5. 식모, 이 변함없는 인권의 푸대접
- 67. 2. 르뽀-여차장 학원을 찾아서
- 67. 3. 허리웃스타가 된 전쟁 고아/300명의 사위를 얻고
- 67. 5. 르뽀-기지촌실태
- 67. 10. 타이한 내 구원의 연인
- 67. 12. 67년을 빛낸 여류 10인
- 68. 2. 사건 속의 여인
- 68. 6. 사회 르뽀-동란의 후유물/사회진단-시골처녀 무작정상경 추적기
- 68. 10. 동두천에 세워질 공덕비
- 69. 6. 윤락여성개조를 위한 메모
- 69. 11. 여차장
- 69. 12. 생활방식의 변혁
- 70. 2. 행복한 국제결혼
- 70. 3. 불행 이기는 여인공화국
- 70. 4. 여성직업가이드

Abstract

How Discourse on Marginalized Females Was Formed:
Centering on Awareness of Social Reality Reflected in *Yeowon*

Seo, Yeon-ju

This study takes a closer look at the process of how the discourse on marginalized females was formed, based on what was reflected in *Yeowon*, the representative women's magazine in the 1950s and 1960s. This study seeks insight into the modernization project of the 1960s and how its social discourse penetrated people's daily lives.

Yeowon targeted the limited group of the urban middle class as its main reader base. Against this backdrop, it was only natural that materials covered in this magazine were judged dichotomous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rban middle class. Cities versus farming areas, the capital of Seoul versus rural areas, the educated versus the uneducated, housewives versus working women, Western values versus traditional values, these dichotomous sets of idea had antagonistic relations with each other, establishing themselves as the magazine's main discourses. With the coming of the 1960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a more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Yeowon* took the job of disciplining women, who emerged as major consumers, in line with the government policies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

Ostensibly, *Yeowon* claimed to be promoting women's awareness of empowerment or independent awakening. This, however, was nothing but a strategy to conceal a mechanism that rather strengthens

patriarchal ideologies. The hidden intention behind the magazine's discourses on marginalized females, house maids, female factory workers, conductresses and prostitutes was to make its female readers internalize the ideology that being a "wise mother and good wife," who feels gratified with a "romantic love," and steady, main builder of a "sweet home" is the happiest and most ideal lif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viewer and interviewee in its feature articles or in-depth reports on marginalized females symbolized the power relations formed in accordance with patriarchal social order. By publishing such articles repeatedly, ultimately Yeowon educated middle-class female readers to recognize their class status and become "wise mothers and good wife."

Key words : Yeowon, Modernization project of the 1960s, The government policies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 A readership of the middle class woman, Marginalized Females house (house maids, female factory workers, conductresses, prostitutes), dichotomy, Patriarchal ideologies, Wise mother and good wife, Education.

■ 본 논문은 10월 30일 투고되어 11월 24일에 심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게재가 확정되었음.